

사랑의 원리로서의 정의*

임 혁 재 (중앙대)

주제분류 종교철학

주요어 신, 사랑, 정의, 응보,

요약문

이 글은 사랑에 토대를 두고 있는 성경적 정의관을 고찰한다. 무엇보다도 성경적 입장에서의 정의는 신앙과 윤리가 결부되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곧 의무의 빛을 지고 있으므로 신앙을 가져야 하고, 인간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윤리를 가져야 함은 당위이다. 예수는 악인을 악으로라는 원칙을 부정하고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서 응보의 정의를 사랑으로 바꾸었다. 이런 점에 주목한다면, 예수가 표명한 새로운 정의는 모세의 율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예수는 응보의 정의를 부정하여 죄인에게도 선을 가지고 보답하라는 사랑의 원리로서 정의를 말했지만, 응보의 정의를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예수는 사랑의 정의로만 일관하지 않고 기존의 악한 질서를 지지한 사람들에 대한 징벌로도 정의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가 말하는 정의에는 하느님의 정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의도 있다. 전자는 사랑의 원리에, 후자는 응보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전자는 신앙으로부터 성립하지만, 후자는 실정법과 정합적이다.

* 이 논문은 2001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을 말한다. 따라서 능동적인 관심이 결여된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사랑의 이러한 요소는 성경의 <요나서>에 잘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하여 ‘니네베’로 가서 그곳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악한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요나는 니네베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도망쳐 버렸다. 그는 율법과 질서에 대한 감각은 강한 사람이었으나 사랑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가려고 시도하다가 고래의 배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그의 사랑과 단결심의 결여가 그에게 고립과 감금의 상태를 가져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구해주고 다시금 니네베로 가게 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니네베의 백성들에게 설교했다. 그러자 그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니네베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행실을 고쳤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도시를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요나는 상당히 분노하고 실망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비가 아니라 사랑의 정의가 실행되기를 바랐던 것이다.¹⁾

예수는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총독을 향해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했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진리를 증언한다는 것이 구세주의 주요한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사실 정의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정의를 신의 나라에 실현하고 그리고 또 이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

1) Eric From, *The art of loving*. Banthom ed. Harper and Raw, 1963, p. 22.

도의 피에서 한층 중요한 물음인 인류의 영원한 의문이 일어났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그것이다.²⁾

예수는 응보의 정의를 부정하여 죄인에게도 선을 가지고 보답하라는 사랑의 원리로서 정의를 말했다. 이 사랑의 원리는 인간성의 근본적인 변화 후에만 실현될 수 있는 초현실적 원리이다. 그러나 예수는 이 사랑의 정의로만 일관하지 않고 기존의 악한 질서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대한 징벌로도 정의를 말하고 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정의의 종교, 평등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한다. 신은 정의라고 하는 이 사상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곧 신적 정의는 영원불변의 정의이다.³⁾

대체로 정의 개념의 성경적 사용은 ‘의로움’ ‘의롭다함’ ‘올바름’ ‘의롭게 하심’ 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또한 ‘의’에 대하여 옴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다.⁴⁾ A. A. 하지는 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은혜 언약에서 그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에 의해 그들의 것으로 만드시는 때에 그는 주권자로서 그 언약을 시행하신다. 다른 편에 칭의(정의)는 그 주권적 전가에 의거하여 행동하시는 율법이 우리에게 관하여 완전히 만족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라고 하였다. 또 조금 다른 말로 정의하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인에 관한 율법의 모든 주장이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이다.⁵⁾

성경적 정의관은 일반론과는 상징적으로 대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경적 입장에서 정의는 신앙과 윤리가 결부되어 있음을 본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2) Hans Kelsen, *What is Justi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7, p. 1.

3) 같은 책, p. 25.

4) 박형용, 『교의신학』 5권, 은성문화사, 1974, p. 272.

5) 같은 책, p. 275.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羊)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창 30:33) 하신 말씀에서 보면 의는 윤리적인 뜻으로 거짓되고 부도덕한 것의 반의어로 올바르게, 정직한 뜻을 가진 것이다. 이것은 의가 인간의 덕의 최고 가치임을 말해주는 것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자기를 따라 의로워질 것을 요구하는 윤리적 특성을 강조한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렘 12:1).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함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의는 윤리적 규범으로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의미하는 도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내면적인이 관계의 특성으로서의 의미도 갖는 것이라 본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곧 의무의 빛을 지고 있으므로 신앙을 가져야 하고, 인간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윤리를 가져야 함은 당위이다.

그러므로 정의가 신앙과 윤리에 결부되어 있음은 필연적인 것이며, 그 신앙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롬3:30; 5:1)함은 의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뜻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고후 5:21)고 하여 성도들의 의는 덕의 완성보다는 죄사함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를 통해서만 의롭게 됨을 결단케 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뜻은 인간적 정의에 대하여 규범적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 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전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

리라 내가 들으리라”(신 1:16-17).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를 변형시키는 상태로 나타난다. 포도원에 관한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보면 먼저 일하러 온 자와 뒤에 온자가 똑같은 값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사로서 사랑이다.

그러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게 악하게 보느냐”(마 20:15)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이 세상의 질서와 정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정의를 규정지우는 높은 차원의 신앙과 사랑의 결단임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요일 4:8)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신 6:5-6)라고 하신 것은 사랑의 윤리를 하나님과 세상에 적용할 것을 명령한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에게는 의무요, 책임인 것이라 하겠다.

II

정의의 개념에 있어서 옹보의 원리는 악에 대하여는 악으로 선에 대하여는 선으로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벌이 반듯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인간의 최대의 화인 죽음은 죄에 대한 벌이다. 또한 노동과 산고 역시 화로 해석되어 창세기 기사는 아담의 타재와 관련지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후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과실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 3:16-17) 이 말씀을 보면 여자

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이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 했다. 인간이 범죄 함에 따라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다.⁶⁾

또한 바벨탑의 기사도 인간의 교만에 대한 벌로써 정당화되어 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오 언어가 하나이었더라....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도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창 11:1-6).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탑을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최악이었다. 또한 자연적인 재해로서의 악까지도 죄에 대한 벌로 해석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출 7:14~15)라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연을 통해 벌하고 선한 자연의 질서를 악한 질서로 만드는 것도 인간의 악한 행동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아벨의 죽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로 인한 벌로서의 멸망인 것이다. 그러나 죄에 대한 벌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에 대한 포상의 사례도 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창 22:16-17) 그리고 모세 역시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서 행복을 약속한다. “네 양 무리 중에서도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 하겠노라”(신 15:14-16).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형벌의 참혹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6) 박운선, 『성경 주석』, 「창세기 주석」, 영음사, 1980, P. 107.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이도 도망하리라”(레 26:14-17). 이러한 야훼 하나님의 복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나타내었다. 참으로 야훼 하나님은 복수와 책벌의 신이매 분명하다.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신 32:41-42).

계속해서 모세는 정의의 본질인 응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신 11: 26-28). 이와 같이 응보적 정의의 원칙은 벌이다. 이때에 벌의 원칙은 모든 유서한 죄에 대한 벌이 균등성을 갖추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다. 신앙적 비의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현실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별이 더욱 뚜렷하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출 21:23-25). 그러나 성경의 기사들이 모두 합리적이거나 정합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체로 실정법의 합리성도 신앙적 비의에서도 모순되며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순은

응보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의 대립인 것이다. 응보는 악인은 악으로 대하고 선인은 선으로 대하라는 원칙인 것이고 사랑의 원리란 너희 적을 사랑하고 악도 선으로 대하라는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근본 정신이 엄격한 공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보복하지 말라”(눅 6:29-30)는 뜻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같이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38-42). 악은 악으로라는 원칙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제재는 불법행위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형벌이라는 해악을 가지고 갚는다고 하는 것, 즉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특유의 기술인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눈을 눈으로라는 말은 법정 재판의 공정을 위하여 가르친 것이다. 또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는 복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곧 몸의 고난을 면키 위하여 진리를 버리지 말 것이며, 악인에게 원수 갚지 말고 너그러이 행할 것을 가르친 것이다.⁸⁾

그런데 예수는 “(남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1-3)고 가르치고 있다. 또 “(남을)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눅

7) 박윤선, 『성경 주석』, 「출애굽 주석」, p. 565.

8) 박윤선, 『성경 주석』, 「마태복음 주석」, p.182.

6:37)라고 말했다.

예수는 악인을 악으로라는 원칙을 부정하고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서 옹보의 정의를 사랑으로 바꾸었다. 다시 말하면 긍정의 측면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 5:43-45)고 하였다. 온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만 실행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로 13:8-10).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다.

사랑은 죄인과 법을 준수하는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어이나? 너의 적 죄인까지도 사랑하라 악인은 악으로가 아니라 선을 가지고 갚아라 이것이 예수의 정의이다. 법이 정하고 재판관이 적용하는 죄인의 처벌은 하나님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의이며 인간성을 초월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 의미에서만 정의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마음속에 품은 정의에 원망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도 하나님의 정의가 정통적 정의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너희 정의가 바리새파의 사람들의 정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복음서는 현존하는 유대의 율법과 예수의 가르침과의 모순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는 예수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 5:17)고 말한 것으로 했다면 마가와 누가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막 2:22)(눅 5:37)라고 예수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

이 비유는 예수와 제자들이 단식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예수의 응답이다. 여기서 예수는 더 나아가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이 밭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자르는 율법의 위반이 기록되고 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은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 하나이까”(막 2:18). 이것을 볼 때 포도주와 가축부대의 비유는 예수가 표명한 새로운 정의는 모세의 율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III

예수의 가르침에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메시아사상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완전한 정의와 행복한 나라의 도래에 대한 신앙 곧 낙원의 기다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래하게 될 행복이 완전한 정의와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정의가 지배하는 미래의 낙원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울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사 29:18-21). 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사 32:15-17).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세계에는 화평, 평화, 안전, 안식 우리에게 있는 영적 평안이 그것이다.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1-9).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다. 다윗을 이름하지 않은 것은 미천함을 드러내려는 것이고, ‘한삭은 연약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다. 이 말씀은 구원이 완성된 내세에 만물이 새로워 질 것을 가르친 것이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정의가 지배하는 시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에스겔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을 알리고 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으로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27) 이것은 새 마음으로 섬기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유대 본토로 돌아가는 운동의 요점도 육체적 행복을 회복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광복

9) 박운선, 『성경 주석』, 『이사야 주석』, p 320.

10) 같은 책. p 126-127.

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신약시대에 있을 메시아의 구원운동을 표지한다. 구약의 모든 구원운동은 육적 구원을 궁극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신약운동의 영적구원을 표지하는 것이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운동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 완성을 본 것이다.¹¹⁾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는 지상에 세워져야 할 것으로 믿어왔으나 후에 가서 초월적 능력을 지닌 메시아의 지배라는 관념이 유대민족에게 일반화 되었다. 대체로 메시아를 인간으로 생각해 왔으나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초인간적 존재라고 하는 사상도 있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를 그 본질적 특징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메시아(예수)의 사명은 지상의 하나님의 정의를 펴는데 있다. 이 정의는 사후의 세계에도 잔존하는 비물질적인 불멸의 영혼이 내세에 받는 응보는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과 육체를 불가 분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육체가 없는 정신만의 관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어디에도 육체가 사라진 후에 정신만이 존재 한다고 하는 신앙은 찾아 볼 수 없다(욥 14:10-15)(시 27:13)(전 3:21). 예수의 가르침에서 미래의 정의의 세계는 곧 메시아의 왕국이다. 여기서 메시아론과 종말론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는 현재의 세계를 악의 세계로 규정하는 점에서 예언자들과 공통점을 갖는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한 이렇게 되리라”(마 12: 45).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눅 11:29), “절개 없고 죄 많은 세대”(막 8:38) 등의 말씀을 예수는 했다. 여기서 표적은 성령의 역사보다 사람의 호기심에 만족을 주기 위한 외부적 욕망을 일컬음이다. 또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경이이다.¹²⁾ 그러나 이 시대는 종말에 가깝고 하나님의 왕국인 정의의 시대

11) 박운선, 『성경 주석』, 「에스겔 주석」, p 101-102.

12) 박운선, 『성경 주석』, 「누가복음 주석」, P. 528.

의 새로운 개막이 임박한 것이다. 현재의 세계가 사악한 세대인 만큼 다가올 세상의 정의는 현재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그 위에 수립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표적’이란 것은 윤리성 있는 성령의 역사보다 사람의 호기심에 만족을 주기 위한 성경 기자들을 이름이다. 요나가 고래 배속에 있다가 나온 것은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표적이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되는 것의 원칙이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막 10:31)라는 예수의 말씀의 의미는 이 원칙을 가장 선명하게 들어내 보이는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눅 6:20-25). 이 새롭게 됨의 원칙은 원수를 사랑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계율과 반하는 응보율의 적용인 것이다. 이 사악한 세대에서 행복한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행복을 얻으니 불행이라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재물에서 제외된 자가 그것을 향수하고 있는 자에 대해 품는 정의관으로서 원한과 복수의 정의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 아닌 것이다.¹³⁾

그렇다면 예수의 교훈에서의 응보관념은 어떤 것일까? 복음서에서는 악한 자에 맞서지 말며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또한 계율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예수의 행위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성전에서 황금상과 비둘기 장수를 쫓아 내고 바리새인을 위선자 눈먼자 독사라 부르고 독사

13) Hans Kelsen. 앞의 책. p. 64.

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냄에 너희가 그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의 아들 사기라의 피까지 땅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고 저주하고 있다.

예수가 사랑의 정의를 가르칠 때에 옛 응보의 정의에서 해방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수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마 5:46).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또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35).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10:42).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5-6)든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눅 6:22)라고 말한다. 예수를 체포하러 온 무리들을 향해 겹으로 맞서려고 한 자에게 “검을 가지는 자는 겹으로 망하는”(마 26:52) 법이라고 설득하여 중지시켰다. 가령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의 말은 바로 응보율의 적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도 선지자니라”(마 7:12).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너희에게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계율을 정식화 한 것으로서 이 정식이 전제로 삼는 것은 응보율이다.

IV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왔다. 예수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마 17:11-12)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막 13:33)(마 25:13)고 제자들에게 되풀이 경고하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눅 21:31). “또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막 9:1)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인용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왔다고 하는 말씀과 대체로 같은 뜻이다. 이 사상은 그가 지상에 정의의 나라를 시련할 사명을 지닌 메시아라고 하는 필연적 신앙에서 이끌어낸 결론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의 정의의 실현이다. 복음서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의 전통과 일맥상통한다. 곧 육체적 존재인 인간의 지상의 공동체라고 상상된 것임에 틀림없다.¹⁴⁾ 예수는 제자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

14) 같은 책. p. 67.

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 22:29-30)라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땅도 여자도 풍요하여 여자는 고통 없이 출산한다고 하는 전통적 관념을 정신화한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초월적 영역으로 이행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화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의 사후에 가서였다. 그것은 정치적 필요와 철학적 사변의 영향에서 생긴 결과이다. 따라서 이 사상을 현실의 권력이 정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해석하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¹⁵⁾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마27: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26:64)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눅 9:9).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호산나의 환성으로 영접을 받았다”(마 21: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 19:28).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 1:6)라고 물었는데 이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자신이 메시아이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인정하였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막 15:2) 이 말씀 때문에 예수는 사

15) 같은 책, P. 68.

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예수가 빌라도 앞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18:36)고 말한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왕국이 초 현세적인 것으로 현실 지배와 무관한 것처럼 해석하지만 그것은 왕국의 기원이 하늘이며 기적에 의해서 지상에 수립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신적 영역의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해석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과 도저히 양립되지 않는다.

적어도 예수의 추종자들은 죽은자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로 여기고 있었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36-43).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요소는 육신의 부활이다. 이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지상의 공동체라는 것과 최후의 심판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재판을 받는데 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 하게 하셨고”(행 10:42)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정의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예수의 제자들이 위와 같은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의 서신과 사도행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행 10:42) 또 바울서신에서도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1-2)고

하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인자로서 메시아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심판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태복음 24:30) 이는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르는 것이라고 말 하는 것이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마 6:10)라는 기도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지상의 나라가 정의가 실현되어 천국이 되면 완전과 불완전의 대립적 상극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경험적이고 인간적인 세계와 초월적인 마음의 세계와의 대립을 폐지하는데 있는 것이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숭고하고 절대적인 정의를 체험한다는 것을 뜻한다. 최후 심판의 정의는 응보다. 세례요한과 예수는 심판의 날이야 말로 응보의 날이요 가혹한 형벌의 날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악한 시대가 끝나고 정의의 시대가 도래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다고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했다.

예수도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정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마 10:11-15).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0-24)

“따라서 최후의 심판이 실현하는 정의는 형벌과 포상이 응보임에 틀림없다. 예수도 최후의 심판을 복수의 날”(눅 21:23)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마 24:21) 사람의 아들 메시아는 최후의 심판 날에 내려지는 응보를 생생히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는 못하리라 …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14-43) 최후의 심판의 재판관이 예수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은 그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에서 확증된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응보의 정의를 집행한 것이라고 하겠다.¹⁶⁾ 이 정의는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와는 모순된다.

V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언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사랑은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의 없는 자가 치의의 선언을 받는 것은 사랑의 법칙에 속하는 일이다. 육체는 부패해지고 연약해진 인간성이다.¹⁷⁾

16) 같은 책. p. 72.

17) 박운선, 『성경 주석』, 『바울서신 주석』, p. 28.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갈 3: 10-12). 율법행위에 속한다는 말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 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벌 하심을 의미한다. 항상 행한다 함은 존재와 행위를 율법안에 내재시킴을 가리킨다.¹⁸⁾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갈 5:18)고 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함이고, 율법아래 있지 않다 함은 결점과 허점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허물없는 것과 같이 보아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대우이다.¹⁹⁾ 여기서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유대교 계율의 의례적 규정에 관한 것이며 주요한 법제도 등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정당화 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전 7:1-3)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 알고”(살전 4:3-4) 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1-2)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죽은 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고 직업을 포기하고 노동을

18) 같은 책, P. 35.

19) 같은 책, P. 65.

기피하는 위험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에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살후 3:10)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살전 4:11-12)고 권하고 있다. 바울은 또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납세를 명하였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롬 13:1-2) 예수는 지상 권력을 사탄의 나라로 규정했으나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롬 13:3-7) 이러한 바울의 말은 로마의 실정법과 권력을 정당화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의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옹보울을 하나님의 말씀의 나타남으로 정당화 하는 것이다.

바울은 옹보를 정의의 원칙으로 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랑이 율법과 양립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의 새로운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에 의한 정의와 신앙에 의한 정의를 구별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복수와 노여움과 진노가 언급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

라”(고후 5:10). 이 말씀은 천당에 들어갈 소망을 확신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만이 그의 살아있는 동기임을 말하는 것이다.²⁰⁾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6-9). 바울은 또 고린도 사람들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덧붙이고 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후 10:6)라는 서신을 보냈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반대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어 버리기를 원하노라”(갈 5:12)라고 써 보내고 있다. 여기서 스스로 배어버림이라는 말은 몇 가지 해석을 가진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생식기의 수술하는 것을 의미한다.²¹⁾

그리하여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12:17-19)고 사랑의 정의를 덧붙이고 있다. 바울이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이룩한 공적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정신화한 것이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20) 박운선, 『성경 주석』, 「고린도후서 주석」, p. 340.

21) 박운선, 「바울서신 주석」, p. 62.

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전 15:35-50).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현세의 몸이 죽고 나서야 내세의 부활체가 생겨난다는 비유이며, 장래에 부활할 현세의 썩을 몸과 같지 않다는 비유이다. 그리고 썩은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 받아 부활체로 천국에 참여한다는 것이다.²²⁾

정의의 실현을 내세에 두는 신앙, 곧 영원불멸의 신앙은 지상에서 부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가해자는 사후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 희망을 준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신화 하려고 한 동기는 현실적 권력과 충돌의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종교감정, 비합리주의, 신비주의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고전 3: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

22) 고린도전서 주석. p. 241-245.

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전 1:19-27)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멍청자의 총명이 가리워진다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인 만큼 최고의 지혜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할 힘이 전혀 없다.²³⁾

바울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철학에 속하지 말라고 한다. 그것은 이성과 과학은 신의 초월성과 신비성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취하여야 할 것은 철학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외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1-5).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다. 따라서 이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는 신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고 한다. 그리고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7-19)고 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가르침의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정의는 인간적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 전자는 실정법과 정합적이며 후자는 신앙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원리로서의 정의이다.

23) 고린도전서 주석. p. 23.

A Justice as Principle of Love

Hyuk-Jae, Yim

In this paper I deal with a conception of the Biblical justice based on the love. Above all, justice from a Biblical standpoint are closely bound up with faith and ethic. Man should be moral in order to be faithful in carrying out his duties about God and Man. Jesu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ove. He denies the principle to return evil for evil man, and convert a principle of retribution into one of love. To pay attention to this, we know the new justice Jesus declares is incompatible with the Mosaic Law. Although Jesus mentions to us that we should repay the good with a sinner against a justice of retribution, he doesn't deny entirely a justice of retribution nevertheless. Therefore there are not only God's justice but also human justice to one Jesus told. The former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Love, the latter the principle of retribution. That is formed on the faith, this fits with the positive law.

Key Words: God, Christ, Jesus, Love, Justice, Retribution

임혁재 e-mail : yimhj@cau.ac.kr